

[날썰씨썰] 아리랑과 제주잠녀

등록 : 2011년 07월 01일 (금) 18:11:33
최종수정 : 2011년 07월 01일 (금) 18:11:33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한국 사람이라면, 아니 한국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리랑' 하나로 이내 하나가 된다. 심지어 '분단'이란 높다란 현실의 벽을 해토머리마냥 허물어뜨리고 남과 북을 하나로 묶는 강한 힘까지 발휘하는 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입이 아니라 가슴과 영혼으로 부르는 '아리랑'은 그래서 겨레의 노래, 민족의 노래로 불린다. 세월과 장소를 초월해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민족 'DNA' 자 한국'을 알고 있다는 증거도 된다. 그런 아리랑이 요즘 심상치 않다.

아리랑이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고 한다. 순간 가슴이 찡 울린다.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이 3차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조선족 민요와 문화 아리랑, 가야금 예술, 회춘례, 씨름 등을 게재했다. 이른바 소수민족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적극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 중국 측의 해설이지만 그 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편안하지만은 않다.

세계는 지금 무형문화유산 전쟁 중이다.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역사'를 지키기 위한 총알 없는 전투가 잇따르고 있다. 하물며 '아리랑'이다. 중국 상황이 알려지며 우리나라도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했다. 올해 안에 아리랑 전체를 수집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말그대로 허겁지겁 나왔다. 이 기회에 아리랑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겠다는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앞선다. 국가간 치열한 경쟁을 막기 위해 유사한 무형문화유산의 공동 등재를 유도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방침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아리랑과 중국의 아리랑이 한 묶음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포함되는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에서도 '잠녀'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술적 접근과 기록화 작업 등 선결 과제가 많다. 가능한 작업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역시 일본 '아마'라는 경쟁상대가 있기 때문이다. 양보하고 내 주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다.